

2023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문학 】 심의평

2023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에는 예년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고 지원 작품들도 장르별로 고른 수준과 풍성한 주제를 담고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일상의 구체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경기도 지역의 문학예술의 현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 첫 문학 접수 건수는 총 133건으로, 3인의 장르별 심의위원(시, 소설, 평론)의 1,2차 심사를 통해 20건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간 합의에 따른 공통) 선정기준은 지원 목표의 구체성, 우수성, 예술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예술적 기여도를 중점으로 보았다.

심의대상의 작품들 중에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데믹을 반영하듯, 마스크, 단절, 소외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고, 동시대의 혐오, 폭력, 소외 등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외국 풍경을 이국적 정취가 아닌 구체적 실감과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들도 이채로웠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엮어가는 방식-가령 전통의 설화나 전설을 새롭게 각색하여 제시하거나 숲속의 버섯 사진을 중심으로 단상을 써나가기, 어린이를 위한 명상 그림책 등-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창작으로 경기도 예술현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문학의 경우 시나 소설 모두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발랄한 작품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 작품도 있어서 반가웠다. 가족의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 중에 치매나 돌봄노동, 세대갈등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창작은 지금-여기의 현실을 치열하게 사유하고 있어 진정성이 돋보였다. 이렇듯 풍성하고 다양한 작품들 중에 심의위원들은 위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수월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생애 첫 지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작품들은 대체로 치열한 문학적 열정을 보여주었으나 이 중에서도 오랜 숙련을 통해 형식적으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주제에 있어서 지역성은 물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기도 예술가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그 외의 지원자들의 분투에도 박수를 보낸다.

2023.5.11.

심의의원	손택수 (시인, 노작홍사용문학관 관장)
	하응백 (소설가)
	정은경 (중앙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